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있다. 출가한 승려가 겪는 여러 인연들 사이의 고민과 번민을 표현한 탁월한 작품으로, 이 영화의 제목은 인연들에 의해 생겨난 무수한 일들이 윤회가 되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선(禪)적으로 말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인연(因緣)의 생기에 의한 연기법(緣起法)으로 논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하는 그러한 관계성에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이어진 인연의 사슬로 이어진 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마를 맞이한 지금의 모습은 이러한 연기적 법칙과 다소 다르게 다가온다. 연일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소식과 더불어 올여름의 더위는 작년보다도 매서운 폭염이 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소식만이 나온다.

우리는 그동안 생활의 편의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그러한 편의들이 언젠가부터 지금 겪고 있는 염려스럽고 불안정한 일상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지구 온난화, 쓰레기 문제, 바다 오염, 메탄가스 등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오늘 무섭게 내리는 장맛비나 타오르는 듯한 더위를 탓하고만 있다. 우리의 삶은 지구라는 하나의 법계(法界) 속에서 공존한다. 법계는 법

기록적 폭염·폭우 예상되는 올해
문제되는 기후위기는 연기적 결과
지금의 작은 실천이 변화 이끌어

으로 이루어진 세계로서,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이어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연기적 세상 속에서 나만의 편의를 위해 조금이라도 무분별하게 무언가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이치에 따르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순리가 아닌 역행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해마다 날씨와 환경에 관한 무서운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필자도 해마다 불교의 교리를 통해 경고의 글을 쓰고 있다.

연기법은 '어차피 그러한 결과가 온다면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식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자신의 의지(수행)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주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간다면 이것에 의해 저것의 결과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 문제도 오늘의 우리 자신을 기점으로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면 그 원인이 변화된 내일을 이끌어 올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편의를 위해 놓쳤던 것들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기에, 바꿔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바뀐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시점에 환경도 더불어 바뀔 수 있다.

불교적 삶이란 업(業)의 힘에 의해 이끌려 살며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법(法)의 힘으로서 주체자가 되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언정 그것은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작은 실천이 우리의 내일과 내일의 우리에게 전달되는 법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어느샌가 다시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찾아올 것이다.

장애인 포교에 대한 단상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불교는 한 달에 한 번이든 일 년에 몇 번이든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도 누구에게나 사찰의 문이 열려있는 참 편안한 종교이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사찰들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외형적인 무장애 환경을 만들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 여행가들이 사찰 여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포교 측면 곳곳에서 아쉬움이 크다.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정 대상 포교에는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장애인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은 가뭄에 콩이 나는 것보다 더 드물다. 장애인 중에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장애인 대신 사찰에 문의해보면 99%는 장애인은 곤란하다는 답이 왔다. 템플스테이 공간에 경사로가 있는 방이 있지 않느냐 되물으면 장기로 머무는 사람이 있다거나 짐을 쌓아두는 곳이라는 게 담당자의 답이었다.

불자 장애인과 활동을 하다보면 장애인들에게 일상을 통해 불교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 불자에게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많이 만

장애인 위한 포교 프로그램 부족
비장애인 함께하는 계기 만들어야
장애인 불자 예술활동 독려 필요

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사람들의 명상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지난 4월의 불교박람회를 계기로 불교가 사회적으로 핫하게 뜨고 있다. 의식이 정례화된 어려운 불교보다는 우리 사회 문화 속에 불교 교리를 담아내려는 불교계 노력의 결과다.

일련의 변화를 접한 장애인들도 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심들을 장애인 포교의 하나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불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사찰의 공간이나 불교문화에 담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얼핏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약간의 생각의 전환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중들이 많이 오가는 사찰의 문화 공간 혹은 종무소에 불교적 정서가 담긴 장애 불자의 시 한 편을 액자에 담아 벽에 걸거나 사찰의 소식지에 시 한 편 싣는 일, 불교음악원이나 불교 관련 오케스트라 등에서 실력을 갖춘 발달장애 음악인을 객원 단원으로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이용료의 할인 등 그 종류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 불자에게는 장애 불자들의 문화 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불자가 아닌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불자들의 활동이 불교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 불교에 귀의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坐),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서 설법하실 때, 늦게 참석한 가섭에게 부처님의 자리 반을 내어주면 앉게 했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장애 불자들에게도 부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

社 說

'가산불교대사림' 완간에 부쳐

가산당 지관 대종사의 문자 사리 〈가산불교대사림〉이 완간됐다. 지관 대종사가 1982년 음력 5월 11일 서울 경국사에서 3000배 기도를 하며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을 발원한지 햇수로 42년만이다.

총 20권으로 완간된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에 수록된 표제어는 11만 9487항이며, 도판은 6197개체, 200자 원고지로는 34만 286매에 달한다. 당장 일본에서 간행된 〈망월불교대사전〉이 7136항, 대만의 〈불광대사전〉은 2만여 항임을 감안하면 〈가산불교대사림〉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연구인력은 원내 25인, 원외 20인이 참여했으며, 40년간 연인원을 환산하면 65만 7000명이 불사에 동참했다.

〈가산불교대사림〉이라는 대작불사는 지관 대종사의 발원과 함께 편찬실장 고옥 스님과 연구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관 대종사는 동국대 총장, 조계종 총무원장 재임 시에도 대사림의 원고를 놓지 않았으며, 1999년 1, 2권 출간을 시작으로 1~2년에 한 권꼴로 〈가산불교대사림〉을 내놨다.

지관 대종사의 〈가산불교대사림〉은 완간됐다. 이제는 세계 최대 불교대백과사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았다. 국회도서관,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것을 넘어 아카이브화 등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당장 네이버 등에서 불교용어 검색 시 제공되는 정보들이 '원불교 대사전'에 기인하는 황당한 경우가 많지 않던가. 지관 대종사의 유지를 선양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한 때다.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에 거는 기대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이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국대는 6월 26일 교내 정각원에서 '불교학생연합 발족 기념 6월 동국인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불교학생연합'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행연합 조직으로 회원이 2031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학생신행연합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들 학생연합은 오는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 축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 14개 단과대학과 일반대학원, 듀이카(구 전산원)에 불교동아리를, WISE캠퍼스에는 6개 불교동아리를, LA캠퍼스에도 1개의 불교동아리를 창립시켰다.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동국대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 흥행몰이부터 뉴진 스님의 인기까지 최근 한국불교는 젊게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은 주도적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원하는 신행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불교가 나아가야 할 '넥스트 스텝'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적지 않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이는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이 대학생 전법을 선도하는 신행단체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